

# World Toilet

중국대륙 시리즈 제8편

## 세계최대 빌딩과 눈부신 발전



김현길 (2002) 다국언어의 작가



드디어 베이징에 왔다.

제남을 출발한 특쾌열차는 4시간30분만에 정확하게  
나그네를 베이징역에 태워다주었다.

물 밀 듯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베이징 역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다.

1년만에 다시 와보는 베이징.

사람들의 분주한 발길 속에 중국의 활력이 느껴진다.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나.

궁금증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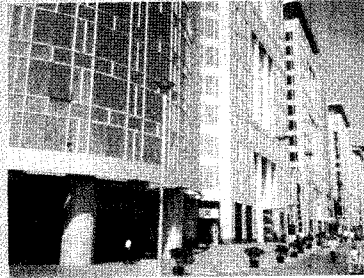
호텔에 가방을 던져놓고 우선 베이징 제일의 변화가인  
왕푸징(王府井)거리에 나섰다.

옛날엔 큰 우물이 있었다해서 그 이름도 왕부의 우물인데  
과연 신문에 보도된대로 왕푸징은 무섭게 변해있다.



### 1. 2. 왕푸징 거리풍경

1. 세계최대 동방신천지 빌딩 외경  
2. 신천지 빌딩 정문



## 세계 최대, 동방신천지 빌딩

우선 근래에 지어진 세계 최대의 건물이라는 동방신천지 빌딩부터 갔다.

과연 외관이 거대하다.

건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길이가 750미터로 단일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크기로도 가장 크다.

그 면적만 여의도의 1/4크기이다.

동방신천지 빌딩은 홍콩 제1의 갑부이자 아시아 최대의 부호인 리자청(李嘉誠)이 2억불(US\$)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다. 한때 리자청은 홍콩반환 직전 홍콩에서 자본을 회수해서 제3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고민하다가 중국 정부의 만류로 홍콩에 남은 인물로 그후 중국의 여러지역에 수십억불의 투자를 하고있다.

그는 고향이 본래 중국 남쪽의 광둥성 조주(潮州)출신인데 공산당을 피해 열살 때 아버지를 따라 홍콩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몸져눅자 13세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첫 직장은 찻집 종업원이었다.

머리가 영민했던 그는 단골손님들이 어떤 차와 어떤 다식을 요구하는지 눈여겨 보았다가 그 손님이 오면 바로 그 차를 내오므로써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후 플라스틱 슬리퍼 공장에 취직했다가 불과 6년만인 19세때 그 공장의 지배인이 되었고 22세때엔 아예 플라스틱 슬리퍼 공장을 차렸다.

이어 플라스틱으로 조화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대히트를 쳐서 기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어 부동산에 뛰어 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그가 이끄는 홍콩 최대의 기업인 장강실업, 화기황포 주식회사의 출발이었다.

그가 만든 동방신천지 빌딩 앞에 서니 중국의 발전이 눈부시다.



1. 신화서적 내부  
(중국최대의 서점)
2. 세도백화점 입구
3. 세도백화점 내부

나그네는 동방신천지 빌딩 옆에 있는 신화서적에 들어간다.

신화서적은 중국 최대의 서점이다.

어찌나 손님이 많은지 어깨를 서로 스치면서 지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교보문고처럼 매장이 크고 책도 많다.

지적 욕구에 불타있는 청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근처에 세도(世都)백화점이 있다.

건물의 외관이 하도 세련되어서 들어갔다가 그만 충격을 받았다.

1층 매장에는 나나리찌, 폴로, 시세이도, 라코스테, 버버리 등 세계 초일류의 화장품, 패션, 가죽 제품 매장들 뿐이다.

2층도 마찬가지이다.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세계 명품은 모두 들어와 있다.

드디어 중국이 명품에 눈을 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명품매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들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상품을 쓰다보면 머지 않아 이 명품에 필적할 만한 중국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된다.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한해가 다르니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상품의 숫자로 보면 중국에 벌써 밀리기 시작했다.

2001년도 세계1위 상품을 보면 미국이 4434개, 일본은 2595개, 중국이 731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50여개밖에 안된다.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이 연초에 등에 식은 땀이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선진국 기술의 벽은 높고 후발 국가인 중국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제일의 아키하바라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제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밀려났다.

대신 그 자리를 중국 공장에서 만든 일제가 들어차았다.

제품의 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산은 미국에서도 이미 중국제에게 밀리고 있다.

가격이 싼 저가품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다.

요즘 국산제품은 중국시장에서 고가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삼성과 LG의 휴대폰, 노트북, 박막-TV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몇 년이 갈지 모른다.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를 사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나도 등에 식은 땀이난다.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중국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로 분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중국제에 신기술 제품마저 추월당하는 날이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워진다.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반도체도 중국과의 격차가 4-5년에 불과하다.

세도백화점을 나오면서 좀 우울했다.

## 커피숍도 이젠 세련

다리도 아프고 차도 한잔 할 겸,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밖에서 보니 그저 그런 커피숍으로 알았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실내장식이 장난이 아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이어서가.

차를 한잔 시키고 실내를 찬찬히 들어보니 인테리어가 아주 세련되어있다.

그것도 중국풍이 아니고 현대판이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 느껴진다.

여기서도 중국의 변화가 느껴진다.

더 이상 꼬질꼬질한 중국이 아닌 것이다.

본색이 발동된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슬쩍 일어나 화장실로 가보았다. 화장실도 단정단아하다.

비록 최고급 변기나 세면대, 거울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이 드디어 화장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중국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美小空

1. 2. 커피숍 화장실 내부
3. 커피숍 내부

